

2024년 공연시장 상위권 공연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②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서양/한국) 편

2024년 KOPIS 티켓판매현황보고서는 1분기, 상반기, 3분기에 발행되었다. 티켓판매현황보고서에는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비중과 상위 20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공연의 티켓판매액이 높은 공연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로 대형 공연장에서 이루어져 티켓이 많이 판매되었거나, 티켓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관객들이 티켓을 구매하여 관람했다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들만큼 각 장르의 공연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 전체 장르의 상위권 공연의 비중은 1분기 30%, 상반기 17.4%, 3분기 27.9%로 나타났다. 1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공연장과 티켓가격이 높은 공연이 많은 대중음악, 뮤지컬 장르가 2024년 전체장르의 티켓판매액 상위권을 주도했다. 이번 2편에서는 1편에서 다루지 않은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서양/한국) 장르의 주요 특징과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각 장르별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의 상위권 공연을 보며 2024년 공연시장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한다.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상위 10개 공연 티켓판매 규모 및 비중

구분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티켓판매액	공연시장 전체(백만 원)	290,386	628,816	379,504
	상위 10개 공연(백만 원)	87,080	109,647	105,957
	상위 10개의 판매 비중	30.0%	17.4%	27.9%

시네마 콘서트와 미디어 기반 공연의 흥행물

2024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이 정상화를 넘어 크게 성장한 한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2024년 3분기까지의 전체 시장을 견인한 트렌드는 시네마 콘서트로 보인다. 시네마 콘서트는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위 20위까지의 공연 중 (1분기: 9개, 상반기: 6개, 3분기: 7개) 대다수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시네마 콘서트 외에 미디어 기반의 공연(팬텀싱어즈, 게임 음악회 등)도 많은 관객에게 크게 어필했다. (1분기: 6개, 상반기: 10개, 3분기: 6개) 시네마 콘서트와 미디어 기반 공연을 합쳐보면 상반기 16개와 3분기 13개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위 20위*2회 총 40회를 기준으로 29개, 약 72.5%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양음악 시장의 대다수 관객이 이미 알고있거나, 익숙한 서양음악 공연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네마 콘서트와 미디어 기반 공연을 제외하고는 크리스티안 짐머만, 안네 소피 무터,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정경화등 최고 스타급 솔리스트의 공연이 티켓판매액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 외에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과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극장의 오페라가 선전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재 국내 서양음악 공연 관객들은 유명한 연주자의 공연과 해외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대작 오페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서양음악(클래식) 티켓판매액 상위 20개 공연 목록

NO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1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롯데콘서트홀]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스즈메의 문단속 & 너의 이름은 & 날씨의 아이 필름콘서트
2	리베란테 1st Concert, La Liberta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고양]	오페라, 오텔로
3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광주]	토스카
4	조민규 단독 콘서트, MONO DRAMA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태백]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인 콘서트
5	히사이시 조 &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Film & His Own Music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울산]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원스 어폰 어 타임
6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히사이시 조 &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Film & His Own Music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Pokémon the Orchestra: 보물 같은 여정
7	한스 짐머 영화음악 콘서트 WITH 라포엠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창원]	포레스텔라 SHOW: FNL : FORESTELLA Night Live [서울]
8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롯데콘서트홀]	유채훈 단독 콘서트: Sfumato
9	이루마 월드투어, 봄을 닮은 겨울 [서울]	리베란테 1st Concert, La Liberta	양인모 &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트
10	Fortena concert, Empire in seoul	라포엠 OST 콘서트: 여름밤의 라라랜드 Season 2 [서울]	롯데 OST 페스티벌, 스즈메의 문단속 & 날씨의 아이 & 너의 이름은 갈라 콘서트
11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인 콘서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피아노 리사이틀

12	너의 이름은, 필름콘서트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서울 (영콜)]
13	히사이시 조 &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Film & His Own Music (1월)	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정경화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14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대전]	조민규 단독 콘서트, MONO DRAMA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음악의 숲: 유키 구라모토, 대니구, 포르테나
15	팬텀싱어4 콘서트, Libelante X Fortena [대전]	정명훈 & 도쿄필하모닉 내한공연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서울]
16	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노 리사이틀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베스트 무비 OST 콘서트 with 라포엠
17	스즈메의 문단속 & 너의 이름은 & 날씨의 아이 필름콘서트	한스 짐머 영화음악 콘서트 WITH 라포엠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손열음 with 고인홀프로젝트: 랩소디 인 블루
18	지브리 & 히사이시 조: 디 오케스트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이 첸 바이올리니스트 내한 리사이틀
19	필하모닉 앙상블 신년음악회	디즈니 인 콘서트 [서울]	동방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콘서트, Invitation from Gensokyo
20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서울]	이루마 월드투어, 봄을 닮은 겨울 [서울]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 콘서트 WITH 포르테나

*색상처리된 공연은 미디어 기반 공연입니다.

팬데믹 이후 공연 시장, 스타 중심으로 회복!

상위 10개 공연의 전체 티켓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분기 모두 약 20% 정도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 리사이틀, 실내악 공연 등 다른 장르에 비해 공연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양음악 시장이 정상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2020년 52.5%, 2021년 49.7%, 2022년 40.2%, 2023년 34.8%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점차 그 비중이 줄면서 다양한 분야, 공연장, 연주자들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10개 공연의 비중이 앞으로 더 증가할지 여부는 위에 언급한 해외 스타들의 내한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연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양음악 공연 시장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상위 10개 공연 외에 공연들이 고르게 성장해야 전체 시장이 안정되고 다양한 공연과 관객이 만나 성장하는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서양음악(클래식) 장르 상위 10개 공연 티켓판매 규모 및 비중

구분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티켓판매액	서양음악(클래식) 시장 전체(백만 원)	16,687	47,648	17,526
	서양음악(클래식) 상위 10개 공연(백만 원)	3,779	10,493	3,761
	상위 10개의 판매 비중	22.6%	22.0%	21.5%

2024년 서양음악(미디어/대중 기반 제외) 상위 공연은 내한 공연과 유명 피아니스트가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서양음악 분야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남성 피아니스트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크리스티안 짐머만, 임윤찬, 조성진, 라파우 블레하츠, 드미트리 시쉬킨, 츠지이 노부유키, 미하일 플레트뇨프, 다닐 트리포노프,

루돌프 부흐빈더 등 마리아 조앙 피레스, 손열음(고잉홈 프로젝트)을 제외하고는 전원 남성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바이올린의 경우 여성 아티스트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 안네 소피 무터, 정경화, 김봄소리(제800회 KBS 정기연주회 협연), 힐러리 한, 클라라 주미 강 등 양인모와 레이 첸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이는 악기별 특성과 합쳐져 서양음악 공연의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외에 정명훈, 조수미, 유키 구라모토 등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와 마티네 콘서트 등 브랜딩화에 성공한 공연이 강세를 보였고,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 등 회원제에 공을 들여온 단체들의 성과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오페라의 경우 제작 극장으로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이 관객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고, 이는 앞으로 주목해서 볼 만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내한 공연, 남성 피아니스트 협연이 합쳐졌을 때 가장 파급력이 있었고, 여전히 스타공연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임윤찬과 조성진의 경우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스타로 성장한 점이 매우 큰 특징일 수 있겠다. 이 두 연주자의 경우 앞으로 수년간은 시장을 주도하며 리사이틀과 협연 모든 공연이 매진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 확보, 건강한 생태계 조성 과제

이러한 현상을 한편으로는 서양음악 공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켜 다른 연주자들은 공연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상위권 공연이 예술의전당에서 이루어져 예술의전당이 관객 개발이 잘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한 공연의 여부에 따라 상위권 공연이 달라지고 있어 한국 아티스트들이 관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한국음악(국악)

스타 국악인의 공연 흥행 주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기반으로 살펴본 2024년에 창극 같은 음악극, 상설 공연, 스타 국악예술가의 공연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작품’보다는 ‘단체’인데, 바로 국립창극단이다. 국립창극단 공연은 2023년에도 상위권을 차지했었다. 2024년에는 <만신: 페이퍼 샤먼> <리어> <변강쇠 점 찍고 옹녀>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초연작이든 재연작이든 관객들은 국립창극단이라는 단체의 브랜드를 보고 공연을 보는 것 같다. 여기에 창극단을 이루는 수많은 스타 단원들의 인기도 한몫을 했다. 예술 장르를 막론하고 ‘스타’들의 존재와 출연은 장르의 부상과 인기에 늘 한몫한다. 그런 점에서 소리꾼 김영임의 <효(孝) 대공연>은 대구나 성남 등 어느 지역에서나 인기를 끌었다. 김영임뿐만 아니라 2020년 <팬텀싱어>(JTBC)를 통해 매스컴에 올랐던 소리꾼 고영열이 참여하는 많은 공연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대중의 예매가 많이 몰리는 장르는 악기 중심의 공연보다는 성악 중심의 공연들이다. 국립

창극단의 간판스타격인 남성 소리꾼들이 주요 배역을 맡아 '남성 창극'이라는 새 장르를 표방한 <살로메>도 검증되지 않은 신작이었으나, 가사와 줄거리가 있는 음악극이자, 스타들의 출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한국음악(국악) 장르 상위 10개 공연 티켓판매 규모 및 비중

구분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티켓판매액	한국음악(국악) 시장 전체(백만 원)	703	2,111	987
	한국음악(국악) 상위 10개 공연(백만 원)	320	792	272
	상위 10개의 판매 비중	45.6%	37.5%	27.6%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한국음악(국악) 티켓판매액 상위 20개 공연 목록

NO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1	세향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먼	변강쇠 점 찍고 응녀 [서울]
2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김시화, 남성창극 살로메	김영임의 소리 효(孝) 대공연 [대구]	탈놀이의 후학들: 추다, 돌다, 뛰다, 날다 [부산]
3	국립창극단, 리어	김영임의 소리 효(孝) 대공연 [성남]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고양]
4	체공녀 강주룡 [대학로]	국립창극단, 리어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5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	세향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토요명품
6	토요명품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김시화, 남성창극 살로메	서울시무형문화재43호, 경제어산 수록재 시연회
7	관현악시리즈Ⅲ: 한국의 숨결	토요명품	싱크넥스트24, 박다울X유태평양X류성실: 돌고 돌고
8	정오의 음악회 (3월)	ACC 초이스, 남성창극 살로메	제361회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9	고영열 피아노 병창: 춘향	삼청각 수요상설공연, 三清: 삼청	여우락 페스티벌, 송소희, 공중무용: 화간접무 (花間蝶舞)
10	늪은이수자전: 붉은꽃	예맥 악가무, 천명예인	여우락 페스티벌, 김준수: 창(唱), 꿈꾸다
11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바다 [제주]	영재한음 (국악)회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부산]
12	영재한음 (국악)회	체공녀 강주룡 [대학로]	토요국악동화
13	신춘음악회 짙레꽃	이부산 명인 65주년 기념공연, 打의 쉼 (타의 향)	싱크넥스트24, 조영숙X장영규X박민희: 조 도깨비 영숙
14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명연주자 시리즈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	삼청각 수요상설공연, 三清: 삼청
15	달달한 콘서트 [군포]	어린이 음악회 노래놀이, 별별땅땅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사직제례악
16	종묘제례악 [세종]	이희문 송품스토리즈 II, 강남무지개	여우락 페스티벌, 원일, 디오니소스 로봇: 리부트

17	두아: 유월의 눈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 판소리아리아 & 오페라눈대목	낮숨 하나, 밤숨 하나 [부산]
18	삼청각 수요상설공연, 三淸: 삼청	강은일 해금플러스 25주년 기념 공연	정오의 음악회 (9월)
19	통영국제음악제, 김일구의 적벽가	통국립창극단, 절창Ⅳ	토선생 용궁가다 [김포]
20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서천꽃밭 이야기	이자람 판소리, 바탕: 적벽가	변강쇠 점 찍고 응녀 [대구]

전통 계승 공연, 새로운 활력

2022~2023년 티켓판매액 상위권에 진입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대중을 타깃으로 한 것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보다 다양한 작품들이 티켓판매액 상위권을 차지한 것도 이색적이다. 특히 연희집단 더광대 <탈놀이의 후학들>(부산 공연)은 물론,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이나 <경제어산 수록재 시연회> 같은 전통색이 짙은 공연도 티켓판매액 상위권에 들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의 성향이 바뀌었다기보다, 전통을 계승하는 공연들도 이제는 창작 공연 못지않게 모객, 홍보, 관객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특히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형유산을 그대로 선보이는 <종묘제례악>이었다. 더불어 국립국악원의 <토요명품>은 한국음악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설 공연이다. 관객들을 위한 문턱 낮추기 공연은 공연예술통합 전산망에서 해마다 꾸준히 티켓판매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연과 방송, 상호보완적 콘텐츠의 시너지

끝으로 공연 콘텐츠와 방송용 콘텐츠는 별개로 생산되지만, 둘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다. 2024년 하반기에 드라마 <정년이>가 인기를 끌면서 역사가 조명되고, 재현 공연들이 종종 오르기도 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액 상위권에는 이러한 공연들이 없지만, 한국음악(국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3 무용(서양/한국)

국내 공연, 무용 시장의 안정화

무용 공연시장에는 관객의 선택을 받는 불변의 트렌드가 있다. 키워드는 ‘발레’와 ‘내한’이다. 그런데 2024년은 대형 내한 공연이 빠진 자리를 국내 공연이 탄탄하게 채우면서 티켓판매를 견인했다. 3분기까지 티켓판매액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회복 느린 무용시장에서 국내 공연이 완전한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상위권을 차지한 국내 공연수는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늘었다. 티켓판매액 TOP 10 리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기는 50%→100%, 2분기는 50%→70%로 크게 늘었고 3분기는 80%로 동일했다. 특히 2023년 티켓판매액 상당수를 점유했던 대형 내한 공연 파리오페라발레단의 ‘지젤’ 전막 공연이 사라진 자리를 국내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 등이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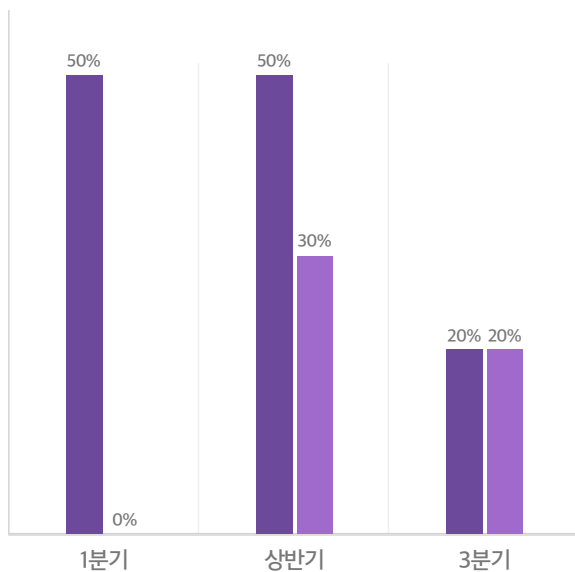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무용(서양/한국) 장르 상위 10개 공연 티켓판매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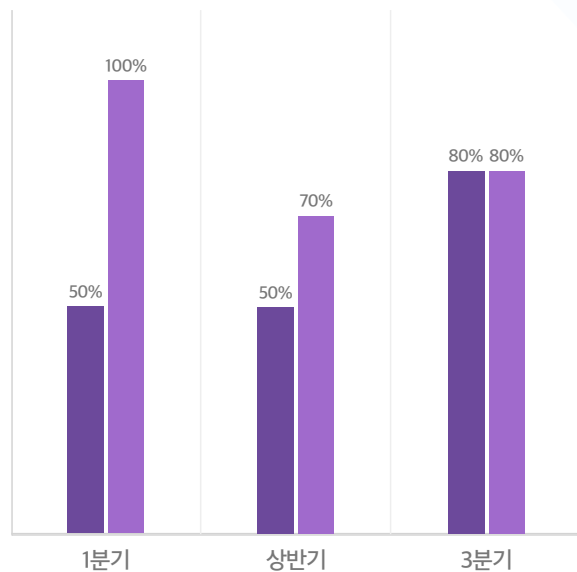
구분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티켓판매액	무용(서양/한국) 시장 전체(백만 원)	1,539	5,998	3,273
	무용(서양/한국) 상위 10개 공연(백만 원)	1,256	3,305	2,183
	상위 10개의 판매 비중	81.6%	55.1%	66.7%



무용 장르 티켓판매액 TOP 10 목록 중 내한공연 2023년~2024년 분기별 비율 변화



무용 장르 티켓판매액 TOP 10 목록 중 국내공연 2023년~2024년 분기별 비율 변화



꾸준한 인기, 발레 공연 강세

2024년 티켓판매액 상위 20개 공연을 살펴보면, 발레 공연이 1분기 80%(16개), 상반기 65%(13개), 3분기 85%(17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높은 성적을 거둔 공연은 1분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유니버설 발레단 <백조의 호수>, 상반기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3분기 파리 오페라발레단 에투알 갈라·유니버설발레단 <라 바야데르> 등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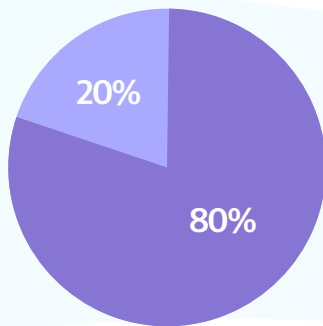


2024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무용(서양/한국) 티켓판매액 상위 20개 공연 목록

NO	2024년 1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3분기
1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고양]	유니버설발레단,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40주년 기념, 라 바야데르
3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서울시발레단 창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
4	유니버설발레단, 코리아 이모션 정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백조의 호수 [성남]
5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용인]	일무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부산]
6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서울]	국립발레단, 인어공주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대전]
7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구미]	선원 월드투어 [고양]	돈키호테 [대구]
8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경남]	발레 슈프림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창원]
9	대한민국 전통춤 문화제: 수건춤 100년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고양]	발레스타즈 [성남]
10	국립무용단 설명절 기획공연, 축제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산]	댄서스 잡 콘서트 [해오름극장]
11	유니버설발레단의 해설이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 CHAMBER [김천]	벽사 정재만 서거 10주기 추모공연, 재회	국립무용단, 행 +- (행 플러스 마이너스)
12	제5회 무용단 알티밋 정기공연: 낭만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부산]	잠자는 숲속의 미녀 [대구]
13	김승일의 예가: 춤의 여정 40년	유니버설발레단, 코리아 이모션 정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경주]
14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살롱콘서트 I :Voice of Spring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용인]	와이즈발레단, VITA
15	체코 브르노 국립 주니어 발레단 내한공연: Ballet NdB 2 [세종]	제54회 동아무용콩쿠르 본선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9월)
16	메시앙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서울]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당진]
17	화양연화 [과천]	제14회 대한민국발레축제, BALLET LAYER	정재만 추모 10주기 공연,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
18	더시티발레컴퍼니 창단공연: To Be Together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구미]	국립발레단 & 도쿄시티발레단, TWO WAVES [강릉]
19	체코 브르노 국립 주니어 발레단 내한공연: Ballet NdB 2 [강릉]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경남]	New Wave Dance [고양]
20	BAC 시어트리컬 시리즈, 체코 브르노 국립 주니어 발레단 NdB2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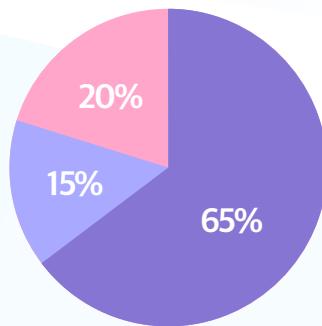
1분기 티켓판매액 TOP 20
무용 세부장르 비율



발레 한국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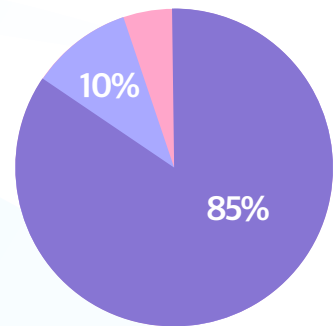
상반기 티켓판매액 TOP 20
무용 세부장르 비율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3분기 티켓판매액 TOP 20
무용 세부장르 비율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다양한 장르의 성장, 무용 생태계 활성화

발레를 제외한 티켓판매액 TOP 10 리스트는 한국무용이 과반수를 점유했다. 세종대극장에서 이뤄진 서울시 무용단 '일무'가 2023년에 이어 티켓판매액 상위권을 차지했고, 국립무용단 명절 공연 '축제' 등 인지도를 얻은 국공립 기획공연 레퍼토리가 이름을 올렸다. 민간 한국무용 공연은 전통춤이 강세를 보였다. 고 정재만 승무 보유자 추모 공연 두 편이 상반기와 3분기에 티켓 파워를 강하게 드러냈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 전통춤 문화제', '제14회 춤&판 고무신춤축제, 춤&판', '김호동의 춤14, 인연 VI: 時節因緣(시절인연)', '호남춤을 잇다' 등이 티켓판매액 상위권에 안착했다. 한국 창작춤으로는 '제5회 무용단 알티밋 정기공연', '제38회 한국무용 제전 본공연'이 순위권에 들었다. 비발레 티켓판매액 TOP 10 목록에 오른 현대무용 공연 중에는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온 민간 무용단 시나브로 가슴에와 정훈목이 있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대구시립무용단 같은 국공립 단체 아래에 위치했지만, 그럼에도 무용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였다.



서울시무용단 '일무'



국립무용단 명절 공연 '축제'

필자 소개

박 진 학 (서양음악)

(주)스테이지원 대표, 94년부터 클래식음악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공연제작, 음반기획, 기업 프로그램 기획 운영,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주자에게는 최고의 연주환경을, 관객에게는 좋은 감상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한국 영아티스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송 현 민 (한국음악)

2011년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으며 서양음악, 전통예술계의 다양한 현장을 오가며 비평과 저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의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예술가와 대중의 사이를 오가고 있다. 현재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윤 대 성 (무용)

심리학과에서 뇌를 들여다보다 무용씬 한가운데 착지했다. 그래서 때론 외부자로, 때론 내부자의 시선으로 공연 예술계를 바라본다. 한국춤평론가회 최연소 회원이자,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이다.